사설

불경언해정신 되새기자

우리글 한글이 창제 반포된지 벌써 550주년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표음문자를 만든 목적과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겉으로 나타나있는 목적은 그 당시의 서민대중을 비롯한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지(御旨)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교를 서민대중들에게 쉽게 보급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우선 훈민정음의 어지부분의 글자수가 108자이고, 이를 해설한 〈월인석보〉 제1권이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불교의 상징수인 108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세조실록〉에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기록에 있는 불교행적을 통해 세종과 세조가 얼마나 불교적 신앙심이 깊었는 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글 창제 뒤에 진행된 각종 언해사업 중에서 불교경전이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당시 조선의 건국이념인 '억불숭유'정신과 서로 맞지않아서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불교적 신심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글창제의 불교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지금 불교계의 역경사업에 대한 문제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역경사업의 물적, 인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대종단인 조계종단은 세가지 사업목표로 포교, 도제양성과 함께 역경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경사업은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료, 제작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역경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등도 변변치 못하다. 지금까지 역경전문가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재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한글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역경사들이 아주 드물어서 새세대를 위한 번역불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불교에 대한 이해와 한문해독 그리고 인접학문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춘 역경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포교와 역경은 현실적인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문서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팔만대장경 등의 정확한 번역을 통한 한글화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경불사가 포교의 밑거름이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사회의 현실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포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성을 바로잡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한글경전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의 교화는 포교의 첫걸음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하는 주춧돌이다. 번역된 한글경전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대중성과 보편성이 생명이다.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경사업만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자.

셋째, 역경사업과 함께 각종 불교의식의 한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한글화된 통일법요집을 만들고 각종 불교의식에서 쉬운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도 대중이 뜻도 모르는 한문경전으로 의식과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열린마당 한글법요의식

인구의 86%가 한글세대다.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대각사 사천왕사 등 몇몇 사찰과 도심포교당이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경전과 예불문을 한글로 봉독하면서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종단 차원의 통일된 한글 의식집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다. 훈민정음 반포 550주년을 맞아 불교의식의 한글화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종단 초월 한글법요의식 통일 절실

봉선사에는 대웅전의 현판과 법당의 주련이 모두 한글로 되어있다. 사찰에 들리는 외래 방문객들이나 사찰 순례자들도 이러한 한글 편액이나 한글 주련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특이하다고 말한다.

사실은 당연한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땅의 불교가 160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정서에 맞아 떨어질런지는 몰라도 이 시대에는 구시대의 전유물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금과옥조가 혼탁한 이 시대의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출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묵암 〈봉선사 포교국장〉

지금까지의 종단의 개혁이 외형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라면, 불교의 의식의 한글화는 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한글화된 법요집은 대중들에게 법회때 일체감을 줄 것이며, 한마음으로 기도의 일체감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각 사찰에서 나름대로 한글화된 의식을 만들어 법회시 사용은 하고 있으나 사찰마다 모두 다르고 사용문구나 단어의 어휘 선택도 차이가 많다.

때문에 종단에서는 한글법요집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한글법요의식집 제작을 위한 공동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식에 대한 통일된 법요집을 만들기를 학수고대한다.

"한문법요집 이해 어렵고 주문외듯"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난 항상 불교의식도 한글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한문일색으로 되어있는 법요집을 대하다보면 늘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 집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경전말씀을 주문외듯이 달달 외기만 하다보니 왠지 믿음과 공부가 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친구가 다니는 절인 부산 망미동의 태고종 사찰 백룡사법회에 동참한 적이 있다. 백룡사는 한글로 된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 경전뿐만 아니라 방생의식 천도의식 관음의식 화혼의식 등 일상의례도 한글로 봉독을 하고 있었다. 법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녀노소할 것없이 입을 모아 한글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인상깊었다.

장화숙 〈부산 영주사 신도〉

복잡한 것보다 쉬운 것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불교의식의 한글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글불교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반 불자들과 스님들이 기도 불공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한글법요집〉내지 〈한글불교의식집〉의 발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역할은 종단 및 학계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앞장서야 하리라고 본다. 또 불자 및 스님 모두 한글불교의식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의식한글화 현황

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 가동
방대한 의식 현실맞게 정리 필요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엄·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 부처님과 불자들 사이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한다." 이같은 지적이 불교의식의 한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까지 나온 한글법요집만 해도 광덕스님의 〈불광법회요전〉, 현능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식집〉, 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 전북사암승가회의 〈우리말 불교의식집〉, 불교의식교육원의 〈불교의식집〉, 무불스님의 〈한글법요집〉, 이동성법사의 〈한글법회요전〉, 한정섭법사의 〈생활불교의식〉, 김호성법사의 〈한글불교의식집〉, 조계종포교원의 〈청소년 법요집〉 등 10여종이 넘는다. 대부분 불보살의 명호와 다라니, 제목 및 소제목, 고유명사는 그대로 살리는 등 기본적인 한글화 원칙은 일치하지만 한글예불문과 〈한글반야심경〉 〈한글천수경〉 등은 각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단 차원의 '통일된 한글 불교의식집'은 아직 없는 상태. 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이 나와 있지만 조계종 포교원은 독자적으로 〈통일법요집〉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청소년법요집〉을 발간한 바 있는 포교원은 지난해 통일법요집 기획팀과 편찬위원회를 가동, 올해안에 시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현장 점검과 보완작업을 마쳐 최종적인 〈통일법요집〉을 편찬·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통일법요집〉이 불교의식의 완전한 한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문이 가지는 함축성과 간결성, 운율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글화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 의미와 운율을 고려하면서 번역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의식의 획일화가 목적이 아니라 방대한 의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원칙있는 준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재가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쉽고도 간편한 의식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

의식한글화 모범사찰

대각사

용성스님 '대각교의식집' 발간후 꾸준히 추진
한글경전 독송하며 모든 의식 우리말로 진행

불교의식의 한글화 실천을 위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이 있다.

서울 대각사(주지 도문)는 매월 지장법회를 비롯 각 법회마다 우리말로 풀이된 한글경전을 법회의식에 사용한다.

이를위해 대각사는 지난 8월 회심곡, 왕생가, 관음시식 등이 수록된 〈한글지장경예식집〉을 펴냈고 지난 9월에는 추석을 맞아 〈한글추석차례예식집〉도 발간했다. 이밖에도 관련 세미나와 발표회, 주련 풀어쓰기, 한글 가로쓰기 등의 한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처럼 대각사는 그동안 한문으로 일관됐던 경전과 의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풀어 신도들의 각종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신도들 또한 한문경전을 독송하며 신행할 때보다 한글경전을 독송하니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처님 법의 수승함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대각사가 다른 사찰에 비해 한글의식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용성스님의 원력에서부터 비롯됐다.

용성스님은 1927년 반야심경, 예불, 타종법, 삼귀의, 천수경, 축원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풀어 엮은 〈대각교의식집〉을 발간하면서부터 한글불교의식운동을 펴 나갔다. 〈근〉

◇대각사는 매월 음력 18일 지장법회때 〈한글지장경예식집〉으로 봉행한다.

현대만평

부처님 손안에 있으니…

박구원

목어

'평생일터'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옆 동료가 먹고있는 짜장면을 나눠먹으며 정겨워 했다. 이 모습을 본 내방객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짜장면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상하조직속에 매일 긴 시간을 함께 일하다 보면 동료는 식구가 되고, 직장은 제2의 가정이 된다. 그래서 직장은 가정처럼 소중하다.

그런데 70.5%의 직장인이 현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다. 현재 자기 사업을 구상중이며, 능력만 갖춰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사직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래불안이 50%로 가장 큰 이유다. 다음이 직무불만, 임금불만, 승진·승급, 여가시간, 상사와의 갈등 등이 퇴직을 고려하는 크고작은 사유다.

직장에서 일의 성취감을 통해 보람을 만끽하는 것은 직장인의 행복이다. 나아가 그 성취감은 회사와 기업 그리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직장 구성원의 70%가 퇴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그 일터에 무슨 활기가 돌 것이며 신바람이 날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셀러리맨들에게서만 그 답을 찾을 일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신명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아 골고루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그룹총수의 경영철학이다.

불자인 이 총수의 경영철학은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장자는 집사를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힘에 알맞게 부리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병이 나면 쉬게 함이다." 〈선생자경〉은 주인, 즉 경영자의 도리를 이렇게 설하면서 집사(직장인)의 도리도 일러주고 있다.

"행위를 착하게 하고 재물 출납을 자세히 하라. 모든 일을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궁핍해도 떠나지 않으며 밖에서 장자의 뛰어난 지혜를 칭송하라. 이렇게 하면 善法이 쇠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일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도리에 맞는 모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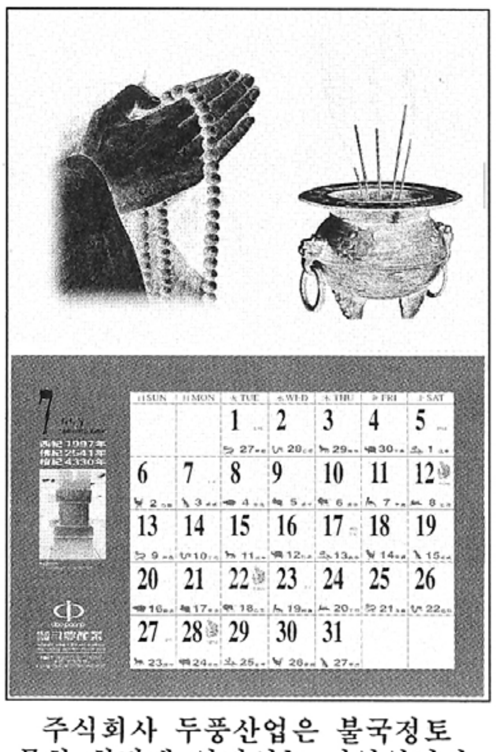
도리에 맞지 않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바른 가르침의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법집요송경〉

협찬 과천 보광사 대중 일동 TEL.(02)502-2262

달력

"올해는 좀 특이하고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스님!

사실 이 달력은 (주) 두풍산업의 기업홍보용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여러스님께 검수를 부탁드렸더니 깜짝놀라시며, 참!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 하시면서 불자들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걸수있는 달력이니 포교용으로 아주용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식회사 두풍산업은 불국정토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달력이라기보다는 작품입니다

숨겨둔 작품 걸리지 않는 달력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벽에 걸려 있을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말쯤이면 스님께서 항상 보내주신 달력, 고맙게 받기는 하지만 막상 집안 분위기에 맞추어 걸자니 좀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았다는 보살님, 첫째는 스님이 좋아하셔야 하겠지만…?

영업안내 : 불 교 건 축 : 사찰, 고건축, 한옥, 닷집, 문짝, 마루, 내장전문
용 품 : 대불, 옥불, 천불, 동불 조각·미술 : 탱화, 개금, 탁자, 영단, 단청, 연, 주련, 법상, 석불, 범종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주)두풍산업
대표전화 (02)439-3900
FAX (02)439-3933